오전의 반등을 살린 금리 우가 환율 — 반도체는 탈탈(-6.4%)에 삼성 -4.6%,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 코스피 6,632를 종가로 오고, 코스닥은 하반기 최저 마감

KOSPI 상세 분석 보기 ▶ KOSDAQ 상세 분석 보기 ▶ 개별 종목 상세 분석 보기 ▶

KOSPI	KOSDAQ	외국인 매매동향	기관 매매동향	주요 이벤트
6,627.76 ▲ 0.22%	812.41 ▼ 0.38%	-38,350억 (3일 연속 순매수)	1,360억 (3일 연속 순매도)	4.50~5.0% / $185.7~188
거래대금 18.2조	거래대금 4.1조	선물 -12,400계약	프로그램 +2,150억	연준 FOMC 예상치 / 엔비디아 실적

MONEY TODAY — 3분 경제질문 정답과 해설

[질문]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0.25%가 아닌 0.50%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실업률이 4.0%로 하락하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8%로 둔화되는 경우

② 실업률이 4.4%로 상승하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3.2%로 가속되는 경우

③ 실업률이 4.0%로 하락하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3.2%로 가속되는 경우

④ 실업률이 4.4%로 상승하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8%로 둔화되는 경우

⑤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모두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 정답 해설 및 오답 분석

정답: ② 실업률 상승은 고용 시장 냉각을 의미하고, 물가 상승률 둔화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의미합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나타나면 연준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듀얼 멘데이트(Dual Mandate)' 대응이라고 합니다.

- **① 오답 이유:** 실업률 하락은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이며, 물가 상승률 둔화는 긍정적이지만 고용 시장이 강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 **③ 오답 이유:** 실업률 하락은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신호이며, 물가 상승률 가속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 **④ 오답 이유:** 실업률 상승은 고용 시장 냉각을 의미하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는 긍정적이지만 실업률 상승이 동반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 **⑤ 오답 이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모두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 주요 개념 및 구조 분석

- **듀얼 멘데이트(Dual Mandate):** 연준이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 지표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입니다.
- **실업률:** 경제 활동 인구 중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 **금리 인하 폭 확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한 번에 더 많이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투자 전략 및 시사점

- **금리 인하 수혜 업종:** 금리 인하는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금리 민감 업종:** 금리 인하는 은행의 예대마진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민감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 투자:** 금리 인하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채권 투자 매력도가 높아집니다.
- **환율 변동성 확대:** 금리 인하는 환율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헤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경제 뉴스 및 사례

-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 최근 미국 경제 지표 부진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12월 FOMC 회의에서 0.50%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선두 주자로, 실적 발표는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학습 팁 및 추가 질문

- **학습 팁:**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을 확인하고, 시장 예상치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통해 금리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연습을 하세요.
- **추가 질문:** 만약 실업률이 4.0%로 하락하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8%로 둔화되는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 폭을 어떻게 조정할까요?

▼ 용어 정리

- **연준(Fed):** 미국의 중앙은행 제도
-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PCE:** 개인소비지출
- **듀얼 멘데이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 참고 자료 및 출처

- 연준 FOMC 회의 결과 발표 자료
- 미국 노동부 고용 통계 자료
- 미국 상무부 PCE 물가 지표 자료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1 전일 장마감 — 종목별 및 시황분석

코스피 6,627.76 (+0.22%) / 코스닥 812.41 (-0.38%) / 거래대금 18.2조 / 외국인 -3,835억 / 기관 +1,360억

▼ 전일장마감 상세 분석

- **지수 흐름:** 코스피는 장중 한때 6,580선까지 밀리며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위기에 놓였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 현물 매수세가 유입되며 6,627.76에 마감했다. 코스닥은 2차전지 업종의 약세가 이어지며 0.38% 내린 812.41에 장을 마쳤다. 거래대금은 18.2조 원으로 전일(16.9조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 **수급 동향:**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일 연속 순매수(-3,835억 원)를 기록했으나 규모는 전일(-5,210억 원)보다 축소됐다. 기관은 1,360억 원 순매도로 차익 실현 물량을 출회했다. 개인은 4,210억 원 순매수로 지수 하방을 지지했다.
- **업종 특징:** 반도체(-1.85%)와 2차전지(-2.10%)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금융(+1.42%)과 통신(+0.95%)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바이오 업종은 혼조세를 보이며 등락이 엇갈렸다.
- **주요 이슈:**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우려가 재부각되며 글로벌 증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1,382.5원으로 마감해 1,380원대 중반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 시장 전망 및 대응 전략

- **단기 전망:** 6,580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다.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와 미국 CPI 발표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 **중기 전망:** 실적 시즌 진입에 따라 종목 간 옥석 가리기 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익 모멘텀이 확인되는 업종 중심의 접근이 유효하다.
- **대응 전략:** 현금 비중 30% 이상 유지하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절 기준은 -5% 내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 주요 종목 분석

- **삼성전자 (005930):** 전일 -4.6% 하락. 외국인 순매수 지속 중이나 반도체 업황 우려로 단기 조정 불가피. 6만 원 지지 여부 확인 필요.
- **SK하이닉스 (000660):** 전일 -6.4% 하락.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변동성 확대 예상. 분할 매수 관점 유효.
- **현대차 (005380):** 전일 +1.2% 상승. 기관 순매수 유입. 실적 안정성 부각되며 상대적 강세 지속 전망.
- **NAVER (035420):** 전일 +0.8% 상승. 검색 광고 매출 회복 기대감 유지. 목표가 상향 조정 검토 필요.

▼ 투자 유의사항

- 미국 연준(Fed) 금리 정책 변화 및 FOMC 회의 결과 발표 일정 확인 필수
-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시 외국인 수급 급변 가능성 유의
- 실적 시즌 진입에 따른 종목 간 양극화 심화 예상
-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장기 보유 지양

▼ 용어 정리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을 뺀 값. 양수(+)면 순매수, 음수(-)면 순매도
- **기관 순매수:**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
-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대량 매매
- **선물 -12,400계약:**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 순매도 규모. 현물 하락 압력으로 작용
-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
- **CPI:**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

▼ 참고 자료 및 출처

-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data.krx.co.kr)
-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별 매매동향
- 미국 노동부 CPI 발표 자료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2 거래량 — 절대적 증가

코스피 거래량 4억 2,310만 주 (전일 대비 +18.7%), 코스닥 3억 1,540만 주 (+12.3%) — 5년 평균 대비 1.4배 수준, 거래대금 18.2조 원 돌파

▼ 거래량 상세 분석

- **거래량 급증 배경:** 외국인 선물 대규모 매수 포지션 구축과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 유입이 동시에 나타나며 거래량이 급증했다. 특히 오전 9시 30분~10시 사이 1시간 동안 전체 거래량의 32%가 집중되는 등 장 초반 수급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삼성전자 1.8조 원, SK하이닉스 1.2조 원, 현대차 0.6조 원 순으로 대형주 중심의 거래가 이어졌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거래대금의 41%를 차지해 시장 집중도가 높은 모습을 보였다.
- **업종별 거래량 특징:** 반도체 업종 거래량이 전일 대비 +24.5%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2차전지 업종은 +15.2%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대별 패턴:** 오전 9시~10시 사이 집중 거래 후 점심시간(12시~13시) 동안 거래량이 급감했다. 오후 2시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며 종가 부근에서 마무리 매수세가 유입됐다.

▼ 거래량 분석 및 시사점

- **수급 해석:** 거래량 증가와 함께 외국인 순매수가 확대된 것은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진 점은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추세 판단:** 거래량이 5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며 3일 연속 증가한 점은 긍정적 신호다. 다만 전고점 돌파 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가짜 돌파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 **매매 전략:** 거래량 급증 종목 중 외국인·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을 우선 관찰하고, 개인 순매수 비중이 과도한 종목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요 종목 분석

- **삼성전자 (005930):** 거래량 1억 2,400만 주로 전일 대비 +21.3% 증가. 외국인 순매수 3,200억 원. 5만 원 저항선 돌파 시 추가 상승 여력 있음.
- **SK하이닉스 (000660):** 거래량 3,850만 주로 전일 대비 +26.8% 증가. 외국인 순매수 2,150억 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변동성 확대 예상.
- **현대차 (005380):** 거래량 620만 주로 전일 대비 +14.2% 증가. 기관 순매수 1,800억 원. 실적 안정성 부각되며 상대적 강세 지속 전망.
- **NAVER (035420):** 거래량 310만 주로 전일 대비 +9.5% 증가. 검색 광고 매출 회복 기대감 유지. 목표가 상향 조정 검토 필요.

▼ 투자 유의사항

- 거래량 급증 종목 중 외국인·기관 동시 순매수 종목을 우선 관찰하고, 개인 순매수 비중이 과도한 종목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연준(Fed) 금리 정책 변화 및 FOMC 회의 결과 발표 일정 확인 필수
-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시 외국인 수급 급변 가능성 유의
- 실적 시즌 진입에 따른 종목 간 양극화 심화 예상
-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장기 보유 지양

▼ 용어 정리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을 뺀 값. 양수(+)면 순매수, 음수(-)면 순매도
- **기관 순매수:**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
-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대량 매매
- **선물 -12,400계약:**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 순매도 규모. 현물 하락 압력으로 작용
-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
- **CPI:**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

▼ 참고 자료 및 출처

-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data.krx.co.kr)
-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별 매매동향
- 미국 노동부 CPI 발표 자료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3 수급 — 외국인 대량의 매도세, 4일째 Bear(약세) 적응

외국인 -3,835억 / 기관 +1,360억 / 개인 +4,210억 (코스피 마감 기준)

▼ 수급 상세 분석

투자주체별 순매수 — 억원 · 코스피 · 최근 5거래일

투자주체	12/01	12/02	12/03	12/04	12/05
외국인	-2,140	-3,520	-1,870	-5,210	-3,835
기관	+1,980	+2,410	+1,120	+1,760	+1,360
개인	+160	+1,110	+750	+3,450	+4,210
프로그램	-420	-1,180	-310	-2,040	-1,890

외국인 선물 포지션 & 콜옵션 풋콜비율 — 계약 · 비율

구분	12/01	12/02	12/03	12/04	12/05
외국인 선물 순매수	-8,200	-11,500	-9,800	-12,400	-10,650
콜옵션 거래량	42,300	51,800	48,600	55,200	61,400
풋옵션 거래량	38,900	47,200	52,100	58,700	64,300
풋콜비율 (PCR)	0.92	0.91	1.07	1.06	1.05

기관 세부 매매 동향 — 억원 · 코스피

기관 세부	12/01	12/02	12/03	12/04	12/05
금융투자	+1,120	+1,540	+760	+980	+1,240
보험	+310	+420	+180	+260	+190
투신(사모)	+540	+610	+290	+430	+310
은행	-120	-180	-110	-150	-140
기타금융	+130	+210	+100	+240	+200
연기금 등	-980	-1,190	-1,300	-1,000	-1,360

외국인 보유 현황 — 코스피 · 코스닥

외국인 보유	코스피	코스닥
보유 주식수	1,284,560,000주	412,730,000주
보유 비중	31.42%	12.87%
전일 대비 증감	-0.18%p	-0.06%p
5일 누적 증감	-0.61%p	-0.21%p
보유 금액	약 851조 원	약 53조 원

▼ 수급 분석 및 시사점

- **외국인 매도 지속 — 4일째 Bear(약세) 적응:** 외국인은 12월 1일부터 5거래일 중 4일을 순매도했다. 누적 순매도 규모는 -1조 6,435억 원에 달한다. 선물 포지션 역시 -10,650계약으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매도 강도는 12/04(-5,210억 원)를 정점으로 12/05에 소폭 완화되는 모습이다.
- **기관 매수 vs 외국인 매도 — 누가 맞는가:** 기관은 외국인 매도분을 4일 연속 받아내며 +5,710억 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금융투자(+1,240억 원)와 투신(+310억 원)이 주도했다. 반면 연기금 등은 -1,360억 원 순매도로 기관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외국인 매도가 일시적 차익 실현인지, 추세 전환인지 판단이 갈리는 구간이다.
- **풋콜비율 1.05 — 과열 아닌 헤지 수요:** PCR이 1.0을 넘어 풋옵션 거래가 콜옵션을 앞서고 있다. 이는 과열 신호라기보다 하락 헤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콜옵션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한 양방향 대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개인 +4,210억 원 — 누가 받아내는가:** 개인 순매수 규모가 5일 중 가장 크다. 외국인 매도분을 개인이 받아내는 전형적 패턴이다. 개인 비중 확대는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주요 종목 분석

- **삼성전자 (005930):** 외국인 -2,150억 원 순매도, 보유 비중 31.42%로 전일 대비 -0.18%p 감소. 기관 +1,480억 원 순매수로 수급 충돌 구간. 5만 원 지지 여부가 관건.
- **SK하이닉스 (000660):** 외국인 -1,320억 원 순매도, 보유 비중 18.65%로 -0.24%p 감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 변동성 확대 예상. 분할 매수 관점 유효.
- **현대차 (005380):** 외국인 +620억 원 순매수로 유일한 대형주 외국인 매수 종목. 기관 +540억 원 동반 매수. 실적 안정성 부각되며 상대적 강세 지속 전망.
- **NAVER (035420):** 외국인 -410억 원 순매도, 보유 비중 12.87%로 -0.06%p 감소. 검색 광고 매출 회복 기대감 유지. 목표가 상향 조정 검토 필요.

▼ 투자 유의사항

- 외국인 매도 지속 — 4일째 Bear(약세) 적응: 외국인은 12월 1일부터 5거래일 중 4일을 순매도했다. 누적 순매도 규모는 -1조 6,435억 원에 달한다. 선물 포지션 역시 -10,650계약으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매도 강도는 12/04(-5,210억 원)를 정점으로 12/05에 소폭 완화되는 모습이다.
- 기관 매수 vs 외국인 매도 — 누가 맞는가: 기관은 외국인 매도분을 4일 연속 받아내며 +5,710억 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금융투자(+1,240억 원)와 투신(+310억 원)이 주도했다. 반면 연기금 등은 -1,360억 원 순매도로 기관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외국인 매도가 일시적 차익 실현인지, 추세 전환인지 판단이 갈리는 구간이다.
- 풋콜비율 1.05 — 과열 아닌 헤지 수요: PCR이 1.0을 넘어 풋옵션 거래가 콜옵션을 앞서고 있다. 이는 과열 신호라기보다 하락 헤지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콜옵션 거래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변동성 확대 구간에 대한 양방향 대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개인 +4,210억 원 — 누가 받아내는가: 개인 순매수 규모가 5일 중 가장 크다. 외국인 매도분을 개인이 받아내는 전형적 패턴이다. 개인 비중 확대는 단기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용어 정리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을 뺀 값. 양수(+)면 순매수, 음수(-)면 순매도
- **기관 순매수:**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
-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대량 매매
- **선물 -12,400계약:**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 순매도 규모. 현물 하락 압력으로 작용
-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
- **CPI:**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

▼ 참고 자료 및 출처

-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data.krx.co.kr)
-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별 매매동향
- 미국 노동부 CPI 발표 자료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4 업종 분석 — 상승률 상위 업종 vs 하락률 상위 업종

상승률 상위 업종 vs 하락률 상위 업종 — 업종별 등락률 · 대표 종목 · 수급 동향 비교

▼ 업종 분석 상세 분석

업종별 등락률 상위 5개 vs 하위 5개 — 등락률 · 대표 종목 · 수급 동향

구분	업종	등락률	대표 종목	수급 동향
상승 1위	반도체	+4.8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 3,200억 원
상승 2위	조선	+3.15%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기관 순매수 1,450억 원
상승 3위	방산	+2.6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외국인 순매수 820억 원
상승 4위	금융	+1.94%	KB금융, 신한지주	기관 순매수 2,100억 원
상승 5위	자동차	+1.38%	현대차, 기아	외국인 순매수 1,150억 원
하락 1위	2차전지	-5.21%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외국인 순매도 -2,340억 원
하락 2위	바이오	-3.87%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 순매수 1,890억 원
하락 3위	게임	-2.64%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외국인 순매도 -610억 원
하락 4위	인터넷	-1.92%	NAVER, 카카오	외국인 순매도 -1,020억 원
하락 5위	화학	-1.45%	LG화학, 롯데케미칼	기관 순매도 -780억 원

▼ 업종 분석 및 시사점

- **반도체 업종 — 상승률 1위, 수급 동반 유입:** 반도체 업종은 +4.8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순매수 3,200억 원이 유입되며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종목이 동반 상승하며 업종 전체 모멘텀을 견인했다.
- **조선·방산 — 기관 주도 강세:** 조선 +3.15%, 방산 +2.67%로 기관 순매수가 집중됐다. 수주 잔고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수급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 **2차전지 — 하락률 1위, 외국인 이탈 지속:** 2차전지 업종은 -5.21%로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순매도 -2,340억 원이 이어지며 수급 부담이 가중됐다. 개인 순매수 1,890억 원이 유입됐으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바이오 — 개인 vs 외국인 엇갈린 수급:** 바이오 업종은 -3.87%로 하락했다. 개인 순매수 1,890억 원이 유입된 반면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섰다. 수급 주체 간 엇갈린 움직임이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 투자 유의사항

- 반도체 업종 — 상승률 1위, 수급 동반 유입: 반도체 업종은 +4.82%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순매수 3,200억 원이 유입되며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확인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대 종목이 동반 상승하며 업종 전체 모멘텀을 견인했다.
- 조선·방산 — 기관 주도 강세: 조선 +3.15%, 방산 +2.67%로 기관 순매수가 집중됐다. 수주 잔고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 수급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 2차전지 — 하락률 1위, 외국인 이탈 지속: 2차전지 업종은 -5.21%로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순매도 -2,340억 원이 이어지며 수급 부담이 가중됐다. 개인 순매수 1,890억 원이 유입됐으나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바이오 — 개인 vs 외국인 엇갈린 수급: 바이오 업종은 -3.87%로 하락했다. 개인 순매수 1,890억 원이 유입된 반면 외국인은 순매도로 돌아섰다. 수급 주체 간 엇갈린 움직임이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 용어 정리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을 뺀 값. 양수(+)면 순매수, 음수(-)면 순매도
- **기관 순매수:**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
-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대량 매매
- **선물 -12,400계약:**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 순매도 규모. 현물 하락 압력으로 작용
-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
- **CPI:**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

▼ 참고 자료 및 출처

-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data.krx.co.kr)
-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별 매매동향
- 미국 노동부 CPI 발표 자료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5 뉴스 종합 — 주요 기사 22개 엄별 정리 & 시장 영향

주요 기사 22개 엄별 정리 & 시장 영향 — 제목 · 출처 · 분류 · 영향도 · 관련 종목

▼ 뉴스 종합 상세 분석

주요 기사 22개 엄별 정리 & 시장 영향 — 제목 · 출처 · 분류 · 영향도 · 관련 종목

제목	출처	분류	영향도	관련 종목
삼성전자, 3나노 GAA 2세대 양산 돌입… 파운드리 반등 신호탄	한국경제	기업	상	삼성전자
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파월 의장 발언에 뉴욕증시 하락	매일경제	해외	상	전 종목
SK하이닉스, HBM3E 12단 샘플 엔비디아 공급 시작	머니투데이	기업	상	SK하이닉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외국인 수급 변동성 확대 우려	이데일리	시장	중	전 종목
현대차,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 가동률 90% 회복	연합뉴스	기업	중	현대차
2차전지 업황 회복 기대감…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 동반 강세	서울경제	업종	중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한은 "내년 성장률 2.1% 전망… 수출 회복이 관건"	한국경제	거시	중	전 종목
네이버, 생성형 AI 검색 전면 개편… 광고 매출 영향 주목	조선비즈	기업	중	NAVER
카카오, 골프장 예약 플랫폼 사업 철수… 구조조정 가속	한국경제	기업	하	카카오
셀트리온, 램시마SC 유럽 처방 확대… 3분기 실적 개선	매일경제	기업	중	셀트리온
미 재무부, 중국 반도체 장비 추가 제재 검토 보도	로이터	해외	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닥 바이오 기술특례 상장 3개사 수요예측 흥행	머니투데이	업종	하	바이오
정부,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5조 원 조성 발표	연합뉴스	정책	중	건설, 증권
유가 배럴당 85달러 돌파… 정유·항공 엇갈린 전망	서울경제	업종	중	SK이노베이션, 대한항공
삼성전기, 베트남 MLCC 공장 증설 투자 결정	한국경제	기업	중	삼성전기
금융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검토… 시장 안도	매일경제	정책	중	전 종목
엔씨소프트, 신작 게임 출시 연기… 주가 하락	조선비즈	기업	하	엔씨소프트
한국은행 기준금리 3.50% 동결… 6개월 연속	연합뉴스	거시	중	전 종목
삼성전자 노조, 파업 찬반 투표 가결… 교섭 재개	한국경제	기업	중	삼성전자
미 국채 10년물 금리 4.5% 재돌파… 성장주 부담	로이터	해외	상	전 종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K9 자주포 추가 수주	매일경제	기업	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뉴스 종합 분석 및 시사점

- **반도체 업종 — 호재와 악재 동시 출현:** 삼성전자 3나노 GAA 2세대 양산 돌입과 SK하이닉스 HBM3E 12단 샘플 공급 시작은 명백한 호재다. 다만 미 재무부 중국 반도체 장비 추가 제재 검토 보도는 단기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사 모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금리 — 연준 발언이 시장 좌우:** 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발언에 뉴욕증시 하락, 미 국채 10년물 금리 4.5% 재돌파는 성장주 전반에 부담이다. 한은 기준금리 3.50% 동결 6개월 연속은 시장 예상과 일치해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음 FOMC 회의 결과와 점도표 변화가 핵심 변수다.
- **환율 — 외국인 수급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는 외국인 수급 변동성 확대 우려로 이어진다. 환율 상승 시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수출주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책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도:** 금융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검토는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정책이다. 다만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5조 원 조성 발표는 건설·증권 업종에 한정된 호재로 전체 지수 영향은 크지 않다.

▼ 투자 유의사항

- 반도체 업종 — 호재와 악재 동시 출현: 삼성전자 3나노 GAA 2세대 양산 돌입과 SK하이닉스 HBM3E 12단 샘플 공급 시작은 명백한 호재다. 다만 미 재무부 중국 반도체 장비 추가 제재 검토 보도는 단기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사 모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금리 — 연준 발언이 시장 좌우: 연준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발언에 뉴욕증시 하락, 미 국채 10년물 금리 4.5% 재돌파는 성장주 전반에 부담이다. 한은 기준금리 3.50% 동결 6개월 연속은 시장 예상과 일치해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음 FOMC 회의 결과와 점도표 변화가 핵심 변수다.
- 환율 — 외국인 수급 변동성 확대: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는 외국인 수급 변동성 확대 우려로 이어진다. 환율 상승 시 외국인 매도 압력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수출주 중심의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정책 —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도: 금융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검토는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정책이다. 다만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5조 원 조성 발표는 건설·증권 업종에 한정된 호재로 전체 지수 영향은 크지 않다.

▼ 용어 정리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한 금액에서 매도한 금액을 뺀 값. 양수(+)면 순매수, 음수(-)면 순매도
- **기관 순매수:**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동향
- **프로그램 매매:** 차익거래 및 비차익거래 등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대량 매매
- **선물 -12,400계약:** 외국인 코스피200 선물 순매도 규모. 현물 하락 압력으로 작용
- **FOMC:**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
- **CPI:**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측정 지표

▼ 참고 자료 및 출처

- 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data.krx.co.kr)
- 금융투자협회 투자자별 매매동향
- 미국 노동부 CPI 발표 자료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06 섹터·테마 강세 vs 약세 — 상승률 상위 업종 vs 하락률 상위 업종

상승률 상위 업종 vs 하락률 상위 업종 — 업종별 등락률 · 대표 종목 · 수급 동향 비교

▼ 섹터·테마 강세 vs 약세 상세 분석

업종별 등락률 상위 5개 vs 하위 5개 — 등락률 · 대표 종목 · 수급 동향

구분	업종	등락률	대표 종목	수급 동향
상승 1위	반도체	+4.8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순매수 3,200억 원
상승 2위	조선	+3.15%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기관 순매수 1,450억 원
상승 3위	방산	+2.6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외국인 순매수 820억 원
상승 4위	금융	+1.94%	KB금융, 신한지주	기관 순매수 2,100억 원
상승 5위	자동차	+1.38%	현대차, 기아	외국인 순매수 1,150억 원
하락 1위	2차전지	-5.21%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외국인 순매도 -2,340억 원
하락 2위	바이오	-3.87%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 순매수 1,890억 원
하락 3위	게임	-2.64%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외국인 순매도 -610억 원
하락 4위	인터넷	-1.92%	NAVER, 카카오	외국인 순매도 -1,020억 원
하락 5위	화학	-1.45%	LG화학, 롯데케미칼